3973
340.21

民族史的 正統性理論의 体系的研究

— 概念定立을 中心으로 —

1975. 11.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下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11.

研 究 機 關 : 明知大學 社會科學研究所

研究責任者 : 韓 英 哲

目 次

序論 (正統性의 概念定立 및 理論) 1

第 1 章 概念定立 및 理論体系化의 目的 및 重要性 1

1. 問題의 性格 4

2. 問題의 方向 16

第 2 章 正統性 概念의 普遍的 実態 19

1. 正統性의 歷史的 展開類型 27

2. 現代社会에 있어서의 正統性과 正統化의 本質 및 特徵 29

3. 正統性과 政治的安定과의 相関関係 32

第 3 章 大韓民国의 民族史的 正統性 39

1. 韓国에 있어서의 正統性概念의 特殊性 39

第四章 大韓民国의 民族史的 正統性定立 47

1. 동태적 측면에서 본 우리의 正統性 47

2. 民族史의 要求라는 측면에서의 現実体制를 통한 正統性 立証 49

序論(正統性의 概念定立 및 理論体系)

第1章 概念定立 및 理論体系化의 目的 및 重要性

大統領閣下께서는 1975年度 国土統一院에의 初道巡視에서 指摘하시기를 "將次의 統一에 対備하여 지금 하여야 할 일의 하나는 우리 大韓民国이 民族史的으로 보아 正統性을 가진 国家이며 政府임을 定立하는 일"이며, "따라서 統一은 이와같은 民族史的 正統性의 基盤위에서 우리의 主導下에 이루워져야 한다"[1]는 点을 強調하시고, "大韓民国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立証할 수 있는 理論을 定立하고, 이를 体系化하여 国内外的으로 理解시키고 弘報하는 일"을 国土統一院에서 担当할 것을 指示하셨다.

以上과 같은 大統領閣下의 指示는 곧 「民族의 統一이 우리의 主導下에 達成되어야만 한다는 大前提위에서, 그 基盤을 形成하는 일은 大韓民国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立証할 수 있는 理論을 定立하고 体系化함으로써 国内, 国際的으로 우리의 正統性을 널리 理解시키는 作業이다.

따라서 우리는 民族史的 正統性의 理論을 定立하고 体系化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에 先行하여 問題의 性格에 대한 明確한 理解와 把握이 要請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하에서는 問題提起의 性格糾明과 그 方向設定에 관하여 検討하고자 하는 바이다.

1. 問題의 性格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관한 理論을 定立하고 体系化 하여야할 必要性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加重되기 始作하였다. 그와 같은 現實的 必要性이 加重

되기 始作한 것은 基本的으로 国際情勢의 構造的 変化에 있었던 것이다.

即 1970年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正統性의 問題가 그다지 意識되지 않아도 되었다. 例를들어 1950年代만 하더라도, 国内的으로는 国民들의 意識속에 6·25動乱으로 인한 金日成集団의 残忍性과 反民族性에 관하여는 繁栄의 차이에 関係없이 모두가 다같이 뼈저리게 意識하고 있어, 우선 主体的인 條件에 있어서 南北韓間의 正統性의 問題는 問題로서 意識될 餘地조차 없었음이 事実이다. 또한 対外的으로도, 国際政治의 冷戰的 構造속에서 北傀에 대한 自由友邦国家들은 一事不乱한 백안시정책을 固執하고 있었으며, 또한 中共에 대하여서도 侵略主義의 烙印이 確固히 처져있었다.

따라서 1950年代에 있어서는 大韓民国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合法政府라고 하는 国際的 公認만으로도, 우리의 正統性問題를 더 왈가왈부할 만한 여지조차 없

었던 것이며, 또한 国内的으로도, 国民 모두가 한결같이, 1945年 解放과 더부러 北韓地域이 蘇聯의 軍事的 占領下에 들어감에 의하여, 모스코바의 極東地域에서의 새로운 衛星国設置를 위한 꼭두각시로 金成柱(金日成)를 내세워 北韓住民의 意思와는 関係없이 一方的으로 民族陣営의 人士들을 粛清하고 北韓全域을 모스크바의 意思에 따라 그 괴뢰에게 떠맡겼다는 事実을 자명한 事実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当時만하더라도 男女間이나 世代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国民모두가 北韓 金日成集団의 反民族的 性格에 관하여 明確한 認識을 갖고 있었고, 또한 北傀는 国際社会에 있어서도 그 存在가 외면당하고 있는 不法的 集団이라는 事実에 대한 明確한 認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相対的으로 大韓民国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관하여서는 이를 理論的으로 体系化하여 定立하지 않고도 国内外的으로 우리의 正統性이 直観的으로 充分이 意識될 수 있었고 또한 인지되어 올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民族史的인 正統性이 누가보아도 자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당시 北傀 金日成集団과 그 배후조종자로서의 "로마넹코 政治司令部"는 그만큼 그들의 不法性을 은폐시키기에 급급하고 있었으며, 또한 초조해하며 마치도 正統性이 있는것 처럼 偽装하기 위한 欺瞞的인 術策의 展開에 血眼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와같은 理由때문에 北傀 金日成一党은 일찍이 부터 正統性問題에 관하여 敏感하였으며, 일찍이 부터 그를 위한 造作과 捏造에 부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即 "로마넹코司令部" 및 그 괴뢰로서의 金日成一党은 解放直後 北韓地域에 대한 赤化를 試図하는 過程에서부터 그들은 正統性을 偽装하려는데 神経을 쓰고 있었다. 이와같은 그들의 偽装된 正統性의 主張은 당시 "祖国의 独立"과 "民主主義 社会建設"이란 言語的象徵의 駆使를 통하여 展開되었던 것이며, 그와같은 그들

의 正統性의 偽装術策은 当時 그들이 追求하면 "統一戦線"戦術과 内面的으로 一致되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即 当時 韓半島 전우리민족의 念願은 解放의 기쁨속에 열띤 民族主義的 感情이 高潮되어 있었고, 그 당연한 帰結은 즉시 自主独立国家를 建設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압제에서 解放된 기쁨은 自由로운 民主主義 社会의 実現이란 熱望을 낳게하였다. 다시말하여 당시는 南北韓에 걸쳐 全国的으로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물결이 드높은 時代였고 따라서 "로마넹코"司令部와 金日成一党은 그와같은 趨勢가 北韓住民에 있어서도 例外가 아님을 직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金成柱의 所謂 "金日成"으로의 造作을 통하여 民族主義者로서의 "이미지"造作에 着手함으로서 正統性을 偽装하기 위한 第一歩를 내디뎠던 것이다. 이와같은 正統性 偽装術策의 一環으로서 所謂 "祖国의 独立"이라느니, 또는 "民主主義社会의 建設"이

라느니 등의 象徵的 言語들이 動員되었던 것이다. 即 金日成은 共産独裁란 실체를 "民主主義"란 象徵的 言語로 分析함으로서 마치도 金日成이 民族史的 要求인 祖国의 政治的 近代化에 寄与하는 것과 같은 偽装戦術을 폈으며, 또한 階級革命이란 실체를 "民族主義"란 象徵的 言語로 分析함으로서, 그리고 "共産党"의 設置를 "自主独立国家建設"이란 単語로 分析, 偽装시킴으로서 그들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가장하고, 그것을 토대로 北韓赤化를 위한 統一戦線의 形成으로 直結시키려 하였던 것이다.[2]..........

1955年 12月28日 金日成은 所謂 "思想事業에 있어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体를 確立할 때에 대하여"란 演說로부터 所謂 "主体"를 強調함으로서 北

註 2) 이点에 関하여는, "北韓의 大衆造作"; /北韓共産化過程研究/(高麗大:亜細亜問題研究所), 1972. pp.28~40.

傀의 反民族性을 음폐하고, 오히려 北傀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主張하기 위한 欺瞞的術策을 展開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3]

即 金日成은 主張하기를 "우리党 思想事業에서 主体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革命도 아닌 바로 朝鮮革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朝鮮革命이야말로 우리당 思想事業의 主体이다. ....

우리人民의 闘争歴史와 그 伝通으로 人民들을 교양하여야만 그들의 民族的 자부심을 북돋아 줄수 있으며, 広範한 군중을 革命闘争으로 고무할 수 있다. ....내가 언제인가 人民軍 休養所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씨비리*(시베리아)초원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 풍경은 아마도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들것이다. 그러나

註3) Ilid.

朝鮮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더 마음에 든다. ……… "고 하였다.

이와같은 主張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民族史는 階級闘争의 歴史이고, 따라서 革命이 民族史的 要求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치도 적화를 위한 武力, 暴力革命만이 民族史的 正統性을 継承하는 것임을 北韓住民에게 쇠뇌시켜야만 한다는 点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와같은 "階級革命"을 위한 煽動過程에 있어서는 民族主義的 北韓住民의 感情을 最大限度로 이용하여야만 한다는 点을 強調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金日成은 同 演説에서 "地方의 民主宣伝室에 가보아도 蘇聯의 5個年経済計劃의 図表는 걸려있어도 우리의 3個年 経済計劃의 図表는 찾아볼 수 없다느니, 또는 "人民学校를 가보아도 마야꼽스끼, 뿌슈낀의 写真만이 있는데" 그와같은 方法으로 어떻게 民族的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겠느냐[4]는 등으로 所謂 "民族的自負心"이란 民族主

註 4) Ibid., pp.563 ~ 545.

義的 感情에 호소하기 위한 기만적 正統性의 主張이 必要함을 逆說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金日成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金日成의 発言을 통하여 재삼 確認되는 것이다. 即 金日成이는 박창옥이가 "朝鮮歴史"를 부인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비난하기를 "南韓의 이승만이 광주학생사건등을 強調하여 民族的 正統性을 主張하는데 共産党은 民族的 正統性을 부인하는 인상을 주어 民族的 양심의 진보인사를 유인하는데 失敗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事実을 들 수 있다.[5]

이와같이 金日成一党은 1950年代를 통하여 그들의 反民族的인 政体를 음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正統性 造作에 주력하기 始作하였다.

그뿐 아니라,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共産陣営이 中共과 蘇聯의 반목, 対立으로 因하여 分裂되기 始作하면

註 5) Ibid., P.563.

서부터, 北傀는 金日成個人崇拜를 골자로 正統性의 날조 방향을 굳히기 始作하였으며, 그것은 다시금 1965年頃부터의 급속한 "主体"의 슬로건부활로 나타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即 北傀는 "主体"와 "唯一思想"을 슬로건으로 하여 民族史를 날조 또는 왜곡하고 金日成을 신격화 시킴으로서, 마치도 北傀의 호전적이고 反民族的인 戰争政策이 民族史的 要請인양 기만하고, 金日成個人独裁를 正当化시키기 위한 갖가지 날조된 虚爲宣伝을 強化하기 始作하였다. 即 歴史的 事実의 날조와 歪曲, 각종 대중매개체를 動員하고 각종 선전기구들을 動員함으로서 北韓住民의 意識을 調整하며, 対外的으로는 所謂 平和攻勢를 展開시킴으로서 그들의 호전적 侵略主義의 본질을 음폐시키며, 大韓民国의 正統性을 毀損시키기 위한 각가지 심리전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北傀의 이와같은 심리전은 1960年 4·19当時를 前後하여 고조되였던 것이 최근 70年代에 들어와 다시는

武力挑発과 併行되어 強力히 展開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와서의 이러한 일련의 北傀의 政治攻勢는 60年代의 挑戰과는 그 性格이나 강도에 있어서 質的인 差異가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基本的狀況의 変化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以下에서 狀況의 変化를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韓半島 內部에 있어서의 狀況의 変化를 들수 있고, 둘째번으로는 国際的環境의 変化로 나누워 볼 수 있다.

첫째, 国内的 狀況変化로 본다면 우리社会의 内面的 條件으로 보아, 6·25를 체험하여 보지 못한 세대가 이미 30歲 以前의 世代를 메우고 있어 北傀의 反民族的인 性格을 피부로 意識하지 못하는 層이 날로 增加하고 있다는 点이고, 둘째로는 지난 20餘年동안의 상대적 안정기와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에 걸친 経済成長의 급속한 発展에 따른 안일한 생활풍조로 말미암아 국민 일부

의 安保意識이 相対的으로 추상화되고 있다는 点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7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北傀의 国際的 지위가 相対的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自由陣営의 일각에서는 北傀에 대한 批判的시각이 相対的으로 무뎌가고 있다는 点을 들수 있다.

둘째로 国際的인 状況의 変化를 들면, 첫째로 70年代로부터 表面化되기 始作한 東西陣営間의 緊張緩和에로의 趨勢가 몰고오고 있는 충격, 둘째로는 中共의 国際社会에로의 復帰가 몰고오고 있는 충격, 세째로, 第三勢力圏이 政治的 圧力勢力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事実, 그리고 그에 따른 国際聯合의 構造的 재편에 따른 성격상의 変質이 일고 있다는 事実, 네째번으로는 印支戦争이 共産化로 종막을 고했다는 사실등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70年代에 들어서서의 国内外的인 状況의 変化에 따라 相対的으로 北傀의 大韓民国의 民族史的인 正統性에 대한 도전이 간과할 수 없는 性格의 問題로

번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正統性이 단순한 직관력에 의하여 자타가 共認하는 事実이란 막연한 타성에만 젖어 있을 수 없다는 중대성을 띠우기 始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北傀의 政治, 外交攻勢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주도하에 국론을 통일하고 民族의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再確認하고 널리 国内外的으로 弘報할 수 있는 体系的理論의 定立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2. 問題의 方向

以上과 같은 觀点에서 볼 때에 問題解決의 方向은 스스로 自明하여 지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北傀가 그동안 構築하여 온 글의 正統性 偽装을 위한 각종 論理体系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떠한 手法으로 살포하여 왔는가에 대한 입체적 把握이

要請되는 것이며, 둘째로는 그와같은 北傀의 虛僞 正統性主張의 논거가 같는 허구성과 기만성을 論理的으로 批判하고 暴露하여가는 作業이다.

둘째로는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体系的인 理論으로 定立하는 것이 課題이며, 이와같이 定立된 正統性의 論理를 有効하게 国民들에게 주지시킴으로서 国民들의 政治的인 精神武装을 強化하고 安保教育의 水準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北傀의 心理戦을 克服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同時에 우리의 平和統一의 崇高한 理念밑에 온 国民이 民族史的 사명감을 가지고 총 집결할 수 있는 国民的 에너지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点에서 重要性을 갖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理論的 解明은 国際社会의 輿論을 순화시키는 同時에 우리의 国際的 연대를 強化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相対的으로 北傀의 国際的 孤立을 초래시키고 따라서 北傀의 武力南侵의 음모

를 분쇄하며, 우리의 주도하에 平和的 統一을 達成할 수 있는 国際的 기틀을 마련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即 우리의 正統性 理論의 体系的 定立方向은 以上과 같은 問題意識과 시각에서 出発하여야만 하며, 위에서 지적한 問題点을 充分히 意識하는 方向에서 整理되어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 以下에서는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의 理論的틀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참고 사항으로, 오늘날 国際社会에서, 특히 서구의 学者들間에 論議되고 있는 正統性의 概念에 관하여서부터 개관하여 봄으로서, 相対的으로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이 내포하고 있는 特殊性을 추출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第2章 正統性 槪念의 普遍的 實態

一般的으로 欧美의 政治学者들이 오늘날 政治的 正統性이라 할때에는 "리지티머시" (Legitimacy) 란 単語를 구사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리지티머시를 창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所謂 "리지티메이숀" (Ligitimation) 이란 単語를 써서, 正統性 그 자체와는 区別하고 있다. 따라서 正統性이란 概念과 正統化란 概念을 区分하고 있는 자체가 正統性이란 실체는 결코 固定概念일 수 없으며, 時間과 空間의 차이에 따라 正統性의 存在様式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한편 "리지티머시"란 우리말로 表現한다면, 正統性, 合法性, 正当性 또는 認定받는 대의명분 등으로 表現될 수 있는 概念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欧美社会의 政治学者들이나 社会学者들 사이에서 一般的으로 통용되고 있는 政治的 正統性이란

간단히 말하여 "한 国家社会가 그 構成員들에게 納得이 갈만한 説得力을 지니고 있는 機能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 따라서 어떤 일정한 政治体制가 그 社会構成員들로 하여금, 그 체제야 말로 国民들을 지배할 権威와 権能을 갖고 있다고 信頼하도록 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면 그런대로 그 政治体制는 正統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려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2] 그러므로 正統性이란 단순히 주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결코 기성제품으로 存在하여 물려받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어느 政権体制가 그 政権의 存続을 위한 基本的 機能으로서 계속 추구하여 나아가는 것을 意味한다는 論理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即 어느 政治体制에 있어서든

註 1) A.Schaar "Legitimacy in the Modern State" in P.Green & S.Levinson(eds.) Power and Community(N.Y.Pantheon), 1970.P.285.

2) R.Merelman "Learning and Legitimacy", Amer.Pol.Sci.Rev. 60(Sept.), 1966.P.548 :See also D.Ashford, Ideology and Patticipation(Beverly Hillsi Sage), 1974.

지 正統性의 보지라는 것은 그 政治体制의 存続에 있어서 基本的이고 必須的인 要求이기 때문에, 正統性을 維持하여 나간다는 것이야 말로 必要不可決한 恒久的인 政治目標로 看做되는 것이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3)]

따라서 바로 이와같은 正統性의 確立과 그 維持를 위한 持続的인 追求過程을 가르켜 所謂 正統化(Legitination)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正統性(Legitimacy)은 正統化(Legitimation)를 可能케하며, 또한 正統化는 正統性을 維持케한다는 相関 関係에 있음을 主張하게 되는 것이다. 即 国家는 国民들에 의하여 正統性이 認定되기 때문에 그 제도나 또는 具体的인 対内外政策 하나하나가 正当化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그 反対로 国家의 각종제도 하나하나가 그리고

註 3) B.Thomas Tront "Rhetoric Revisisted:Political Legitimation and The Cold War" i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19, No.3(Sept.), 1975. pp. 252 ~ 253.

国内政策, 外交政策 하나하나가 国民들에 의하여 正統的인 것으로 받아드려지는 正統化過程이 뒤따를 때에만 비로서 正統性을 維持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조만간 그 權力体制의 正統性은 상실되고 말것이라는 論理를 펴고 있는 것이다.

即 멩켄 (Mencken) 과 같은 学者는 主張하기를 "国家란 결코 힘에의한 強制만으로 存続되는 것은 아니다. 国家란 人間의 복종성 (Docility) 에 못지 않게 人間의 信頼性 (Credulity) 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即 国家의 目的이란 결코 단순히 国民들로 하여금 복종하고 싶어지게 유도하는데도 그 目的이 있는 것이라"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4)

그와같은 主張을 받아 "트로트" (Tront) 도 "正統性

註 4) H.L.Menchen, Minority Report. (New York: Alfred A. Krnowp), 1956, pp.217 ~ 218.

이야말로 힘에 의한 強制보다 훨씬 国民들의 진정한 長期的 지지를 獲得하는데 더 効果的인 要因이라 " 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5)]

이와같이 欧美의 学者들은 一般的으로 正統性이란 ' 正統化過程이 뒤따를 때 維持되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고. 따라서 正統化의 手段과 流血에 따라 正統性을 区分하려는 傾向을 보였다. 그 典型的인 例로서 막스·베바 (Max Weber) 를 들수 있겠다.

即 베바는 正統性을 얻기위한 権力의 正当化 (Legit-imize) 를 어떠한 手段과 方法에 기초하여 達成하고 있는가를 유형별로 区分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준형으로 整理하여 놓고 있다.

첫째, 이성적 토대를 근거로한 正統性, 둘째, 伝統的 토대를 근거로한 正統性, 세째, 카리스마적 (Charismatic)

註 5) B.Thomas Tront, op.Cit., P.253.

權威를 토대로 正統性의 確立의 세가지이다. [6]

即 베바의 分類에 의한다면, 正統性가운데는 国家権力의 最高権者가 国民들의 理性에 기초한 合理的인 思考에 基礎하여 그의 権力獲得過程이 合法的(Legality)이고 正当한 過程에 의한 것임을 확신시킴으로서 그의 權威를 認定받음으로서 確立하는 所謂 合法性權威에 根拠한 正統性을 하나의 유형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国民들의 信念体系에 기초하여 最高権者의 権威가 伝統的으로 세습화되어 신성불가침의 権威임을 認定받아 正統性을 確立하는 "伝統的 権威"(Traditional Authority)에 기초한 유형, 그리고 세째번으로는 最高権力者의 特殊한 인품이나, 英雄的 자태 또는 일종의 신비하리만치 신성화된 우상적 存在에 対한 国民들의 굴복에 기초한 카리스마적

註 6) Max Weber,The Theory of Social &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Oxford Univ.Press),1947. P.328.

인 權威가 正統性으로 認定되는 유형등의 세가지 기준 형을 들고있는 것이다.

한편 学者들은 이와같은 제유형의 権威가 古代社会나 中世社会에 있어서는 종종 초자연적 신비주의나 建設과 같은 方式에 의하여 社会構成員에게 전달되고 군림하였으나, 現代社会에 있어서는 주로 시각적상징물, 청각적상징, 言語的象徴의 造作이나 또는 学校教育을 통한 이데오로기나, 信念体系의 확산등을 통하여 大衆意識의 造作 (Mass Manipulation)에 依存하고 있음이 特徵이라 지적하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代的 手法에 의한 正統性確立의 根拠는 窮極的으로 어떠한 内容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에 関하여는 다시금 다음과 같은 의견이 支配的이라 하겠다.

即 첫째로 国家가 指向하는 価値 (Values)와 国民이 指向하고자 하는 価値에 관한 의식과 상충되지 않음

이 說得되여져야 한다는 것이 正統性 維持에 있어서 重要한 일부를 形成한다는 点이다.

둘째로는 베버의 지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国家의 正統性은 国家権力의 掌握過程이 正当한 것으로 納得되어 질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란 点이다.[7)]

세째는 現代民主主義 国家에 있어서는 国民의 意思가 올바로 대변되고 있다는 納得이 国民에게 주워져야 한다는 点이다.

네째로는 政治의 산물들이 결코 社会定義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確信을 国民에게 納得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点이다.[8)]

이상과 같은 네가지 條件이 갖추어 질때에 그 国家의

註 7) Carl E.Friedrich, Man and His Government (New York; Mc.Graw-Hill), 1963. pp.258 ~ 259.

8) Kaorl W.Deutsch, Politics and Government (Boston; Honghton Mifflir Co.), 1974, pp.15 ~ 21. 을 参照할 것.

正統性은 굳건이 確立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一般的 見解인것이다.

그럼 以下에서는 正統性의 유형이 歴史的으로 어떻게 展開되어 왔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正統性의 歴史的 展開 類型

東西洋을 莫論하고 대체로 時代的인 差異는 찾아볼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 正統性이 갖는 特徵的 類型을 보면 대체로 막스·베바가 類型化시켜 놓은 세가지 類型들이 中心이 되어 各時代나 地域的인 特性에 따라 適当이 배합되면서 展開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例를들어, 古代社会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家族이나 부락의 장을 中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카리스마적 權威를 認定하고, 그에 복종하는 形式이, 古代部族国家, 내지는 부락국가에 있어서의 正統性의 基本的特質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카리스마적인 權威는 社会가 점점 発達하여 감에 따라 社会階層의 形成과 그에따른 社会的規範의 発達, 그리고 支配権의 制度化에 따른 伝統이 確立되기에 이르르고, 따라서 카리스마적인 權威에 기초한 正統性의 様式은 서서히 制度的인 세습적 伝統에 의한 権威를 根拠로한 正統性의 形態로 정착하기 始作하였으며 음을 特徵으로 한다.

한편 資本主義의 発達과 市民社会의 形成, 그리고 産業社会의 도래와 大衆社会의 出現과 함께, 다시금 合法的根拠에 中心을 둔, 所謂 합헌적이고 合法的인 正統性이 普遍的 現狀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即 正統性은 어느 具体的 人格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制度的인 職位와 결부되기에 이르른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時代的 発展에 따른 正統性 類型의 変化는 어데까지나 一般的인 傾向으로 보아 그 特性을 열거한 것에 불

과하며, 결코 예외가 없는것은 아니며, 오히려 厳密한 意味에 있어서는 以上과 같은 몇가지 有形의 特徵들이 相互 配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럼 以下에서는 現代社会에 있어서 正統性의 確立을 제 理論과 正統化의 실제에 있어서의 特徵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 現代社会에 있어서의 正統性과 正統化의 本質 및 特徵 9)

現代国家에 있어서는 그 政治 이데오르기나 또는 政治体系에 関係없이, 大部分의 경우 共通的으로 政治에

註 9) 正統性의 本質에 関하여 言及하고 있는 서적들로는 R.M.MacIver, The Web of Government(1947); C.E.Merriam, Systematic Politics(1945); and Karl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1957) 등을 参考할 것.

大衆이 動員되거나 参与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正統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大衆을 動員하고 說得하는 正統化의 手段과 內容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서서 오늘날까지 現代社会의 諸国家들이 正統化에 動員하고 있는 諸槪念 및 手段을 그 特性에 따라 区分하여 본다면 대개 다음의 네가지가 될 것이다.

即, 첫째는 欧美의 自由民主主義 国家들에 있어서의 正統性의 槪念이며, 둘째는 第2次世界大戦 以前에 있어서의 軍国主義的 全体主義国家들에서의 正統化의 論理이고, 세째는 오늘날 共産陣営의 諸国家에 있어서의 正統化의 構造이고 네째번으로 開発途上国家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正統化의 論理와 構造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네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国家들에서의 正統性 維持過程의 特性을 보면, 첫째로 欧美의 自由民主主義 諸国家들에 있어서는 民主主義를 그 政治節次(Procedure)에

서 特性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10] 따라서 国家의 正統性을 집회, 결사의 自由, 言論의 自由, 反対의 自由등 国民이 政治権力을 수용하여 가는 過程에 있어서 얼마나 民主的인 節次와 條件이 구비되었는가를 基準으로 하여, 正統性의 측정치로 삼으려는 경향이 농후함을 特徵으로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軍国主義的 全体主義国家에 있어서는 주로 "종족"이라던지 "国家"란 象徵을 통하여 正統性을 維持하려 하였고, 共産圈国家에 있어서는 "階級"이란 概念을 통하여 正統性의 維持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新生 開発途上国家들은 大部分이 그 植民地的 経験때문에 自然히 民族主義的 感情에 호소함으로서 大衆의

註 10) 이와같은 民主主義観에 関하여는 MacIver, Loc.Cit. F.A.Schumpeter, Capitalism, Socilism and Democracy (1947) 및 Walter Lippmann, The Public Philosophy (1955) 등을 参考할 것.

民族主義的 感情과 政權과의 일체감에 호소하는 것이 正統性 維持의 一般的 形態라 할 수 있는 것이다.[11]

따라서 正統化의 手段에서 볼때에 欧美 自由民主主義社会를 除外한 其他 카테고리에 속하는 国家들에 있어서는 격열한 大衆造作과 강력한 통제 및 때때로 과다한 暴力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을 特徵으로 하는 것이다.

3. 正統性과 政治的安定과의 相関 関係

現代社会에 있어서 産業化, 都市化, 높은 教育水準, 그리고 社会前般의 유택화를 초래시키는 経済的成長이 政治的 安定을 기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인 條件을 形成하는 것이 事実이며, 이와같은 経済的 発展을 가리켜 우리는

註 11) Seymour M.Lipset."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in R.C.Macridis & B.E.Brown(eds.), Comparative Politics (Illinei:The Porsey Press).,P.518.参照.

所謂 全体社会의 能率性(Efficiency)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事実上 政治的 安定이란 결코 이와같은 社会体制의 能率性만으로 確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못지않게 政治体制의 効率性(Effectiveness)과 正統性(Legrtimacy)이 중요한 役割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効率性이란 다름아니라 大部分의 国民이나 特히 그 社会構成員 가운데 중추세력을 이루는 階層들이 政府에 기대하고 있는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効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正統性이란, 다시말하여 現 政治体制야말로 現社会에 가장 적합한 政治体制라고 確信시킬 수 있는 能力을 지적하는 것이다.

政治体制의 安定을 維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効率性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또한 치명적인 것은 正統性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正統性이란

国民들이 지니고 있는 価値観과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即 現体制야 말로 가장 価値있는 政治体制라는데 国民의 대다수가 동의할 때에 비로서 正統性이 確固히 維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例를들어 第1次 世界大戰直後 独逸에 樹立되었던 바이말共和国은 사실상 政治的 効率性면에 있어서는 훌륭하였다 하겠지만, 결국 나치즘에 의하여 崩壊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이말(Weimar)共和国이 내포하고 있던 基本的 価値体系 自体가, 当時 独逸社会의 중추들이라 할 수 있는 独逸의 군부, 国家公務員 그리고 伝統的 貴族階級들의 価値体系와는 基本的으로 갈등을 면치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바이말共和国은 確固한 正統性의 權威를 누리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崩壊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2] 歴史的으로 볼 때에 東西를 莫論하고 어느 일정한 政治体制

註 12) Ibid., pp.515 ~ 516 参照.

의 正統性이 崩壞되고 새로운 正統性이 確立되는 過程에 있어서는 国民들의 価値意識의 変化가 뒤따르고 있는 것임에 유의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13)]

한편 이와같은 価値意識이 変하기 始作하면서 이에 따라 政治体系의 불가피한 変化가 要求될 경우에 実質的인 政治体制의 変化는 가져오면서도 종래의 政治体制를 그 形態에 있어서 残存시킴으로서 旣存의 価値意識과 새로운 価値意識을 同時에 滿足시킴으로서 政治的 安定을 기하는 경우가 많음은 重要한 事実이다. 例를 들어 새로운 政治体制를 추구하는 맥아더司令部의 要求와 日本政界에 있어서 보수정치인들의 伝統的 政治体制에의 価値指向이 타협의 산물로서 내놓은 것이 日本의 実質内容이 除去된 천황제의 계승이란 점이 그 代表的

註 13) Ibid.

예중의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이다.[14)]

둘째번으로 正統性이 위협당하지 않고 政治的安定을 持続시키기 위하여는, 새로운 政治勢力 내지는 새로운 엘리뜨層에 圧力団体를 절치과정에서 소외시키거나 거부하지 않고 계속 적절하게 充足시켜 나아가는 점이 重要함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正統性에의 도전세력을 스스로 흡수시켜 나아간다는 것이 한가지 유형이 되고 있는 것이다. 即 새로운 政治充員의 効率性이 正統性을 보강하여 준다는 側面을 意味하는 것이다.

세째로 正統性의 確立을 위하여는 그 社会의 固有한 民族史的인 政治文化를 간직하고 있음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그럼 以下에서는 政治的 安定의 維持와 正統性 및 効

註 14) 英国, 스웨덴, 놀웨이, 덴마크, 네델란드, 벨지움, 룩셈버크, 오스트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등도 그와같은 例이다.

率性 (Effectiveness) 이 갖고 있는 相関関係를 살펴 보기로 하자.

① 正統性(+) 効率性(−)

② 正統性(−) 効率性(+)

③ 正統性(+) 効率性(+)

④ 正統性(−) 効率性(−)

即 上記 ①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正統性은 確固하나 効率性이 없는 나라는 비록 経済的 공항과 같은 国家的 시련기에 있어서도 相対的으로 政治的 동요없이 극복하여 나아가지만[15] 한편 ②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비록 政府의 効率性은 왕성하다 할지라도 国民들間에 正統性의 지지가 취약한 国家는 全体主義的인

註 15) 이것은 경제공항에 따른 경기침체가 몰고올 社会불안이나 또는 동요가 있다할지라도 正統性의 意識 国民들사이에 왕성한 이상 民主主義的 政治体制와 政治的安定에 直接的 위협이 되지는 않음를 意味한다.

강압방식으로 政治的격동을 치루는 경향이 엿보인다.[16]

한편 ③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正統性도 確立되어 있고 政府의 効率性도 높은 国家는 가장 民主主義的인 政治的 安定을 維持할 수 있는 곳이고,[17] 끝으로 ④에서 볼수 있는 바와같이 正統性도 認定되지 않고 또한 効率性도 없는 政治体制는[18] 崩壊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만약 崩壊를 면하고 存続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데까지나 暴力에 의한 일방적 権力維持에 불과한 것으로서, 政治的으로는 가장 취약한 体系라 할 수 있다.[19]

註 16) 1920年代와 1930年代에 있어서의 日本, 独逸, 오지리 등을 들 수 있다.

17) 韓国이나 美国과 같은 社会를 그 例로 들 수 있다.

18) 그 전형적인 例로 들수 있는 곳은 北傀라 하겠다.

19) Lipset, op.cit., P.519.

第3章 大韓民国의 民族史的 正統性

1. 韓国에 있어서의 正統性槪念의 特殊性

正統性에 관한 現代 欧美社会에 있어서의 一般的趨勢와 그 内容과는 달리, 우리는 이와같은 正統性에 관한 一般的인 槪念의 設定만으로는 充足될 수 없는 特殊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特殊性을 主張하게 되는 基本的인 理由는 첫째, 韓国이 갖고 있는 欧美와는 다른 政治文化의 伝統때문이요, 둘째로는 韓国이 分断国으로서 처하여 있는 政治的 特殊性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以下에서 分断国에 있어서의 正統性의 問題에 관하여 약간 言及한 다음에 우리의 正統性의 定立方向에 관하여 그 全般的인 틀에 관하여 言及하고

자 하는바이다.

가. 分断国에 있어서의 正統性의 問題

国際社会에 있어서 모든 単位国家들이 그들의 存立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正統性의 確立을 위한 正統化의 内容的 根拠를 形成하는 하나의 論理体系가 要請되는 것이나, 分断国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政治体制라는 論理에서의 正統性의 問題뿐 아니라, 分断된 정치실체의 単位들을 再統合시켜야만 된다는 現実的 論理와 根拠로서 또한 正統性의 意味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分断国이라하여 모두 同一한 状況下에 있거나 또는 分断의 영원이 같지도 않다.

혹자는 分断을 타율적이었다는 点에 중점을 두워 자율적 要因이 가미된 分裂国과 分断国을 区別하려 하고, 또한 선분열, 후분단이냐, 선분단, 후분열이냐 등으로 分断国家를 카 고라이즈 하려하며, 또는 分断国 가운데

그와같은 카테고리에서 볼 때에 韓国은 西独과 대비된다고 보려는 見解마저 있다.

勿論 일정한 基準을 提示하고, 그 점에서는 韓国, 西独이 대비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정치실체의 연역이나 現況 및 実態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韓半島에서의 南北分断은 그 어느모로 보나 또한 東西独의 問題와 対備될 수 있는 性格의 것은 못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例를들어, 韓国에 있어서의 政治文化의 伝統은 西独의 경우와 比較가 될 수 없으며, 또한 分断의 原因에 있어서도, 西独은 패전의 산물이었으나 韓国은 패전처리의 산물이었다는 点은 比較될 수 없다. 또한 韓国은 統合国家로서의 歷史가 너무나 길고, 西独의 경우는 그 어느 西欧国家들보다도 짧다.

따라서 우리는 西独의 경우 対内的인 政治的安定과 体制維持를 위한 正統化의 問題만은 별것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対東独을 意識한 正統性의 理論으로서의 법통성 問題는 크게 關聯지을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独逸社会가 지닌 지적전통의 특성을 기초로하여, 적어도 西独의 対東独政策을 観念的 法理論의 테두리에서 合理化시키는 同時에 対東独関係를 規範的으로 명시하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即 法統性의 問題가 같은 불모성은 마치도 分断国의 統合問題를 国際司法裁判所가 다룰수 없다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意味가 있다면, 정통화수단의 일부로서만이 意味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現実的인 問題点이 또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事実上 西欧中心의 国際法 理論이란 事実上 強大国의 自意的 行爲가 展開시켜온 방자한 강대국의 歴史的行爲를 중심으로 그를 合理化하고 그것을 解釈하여 놓고 있음을 중심으로 하는 "정복설"을 중심으로 하여 展開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복당하였던 우리로서 정복을 正当化할

것을 論理的 전재로하는 法理論 가운데에서 正統化의 논거로 使用할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모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特殊性을 바탕으로 한 正統性의 理論体系의 정립이 要請되는 것이다.

나. 韓国의 民族史的 正統性 理論定立의 方向과 그 体系的 틀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金日成集団은 자체의 反民族性과 非正統性때문에 일찍이 부터 正統性問題에 골몰하여 왔으며, 그나름대로 論理的 틀을 設定하기 위하여 각가지 事実의 왜곡 날조등을 통하여 北韓市民들을 세뇌시켜 왔던것이며, 우리는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였으나 그런대로 우리가 당연히 지니고 있는 正統性을 산발적으로나마 널리 주지시켜왔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와같은 非集約的인 諸 資料들을 하나의 시각과 論理的 틀속에 整理할 必要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即 大韓民国의 正統性을 論理的으로 입증하는데 있어서 要求되고 있는 点은 다음 두가지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歴史的 동태적 (Dynamic) 接近에 의한 民族史 속에서 우리의 正統性을 연결시키는 作業이고, 또 한가지는 평면적 또는 정태적 (Static) 接近이라 할 수 있는 우리 社会의 우수성의 입증과 우리社会의 진로야 말로 우리 民族史의 要請에 부합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두가지 측면에로 부터의 우리의 正統性 입증과정에 있어서 늘 대비되어야 할 것을 北傀의 날조된 正統性 論拠의 虛偽性과 기만성이란 点이다.

事実上 오늘날 金日成은 카리스마적要因으로 正統性을 偽装시키기 위하여, 金日成 個人崇拜에 치중하는 한편 "어버이"란 概念으로 潛在的인 전근대적 "孝"의 概念을 착취하려 하고있으며, 또한 金日成 우상화를 위하여 우리民族의 근대사를 完全히 날조하고 왜곡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치즘의 手法을 모방하여, 마치도 히틀러가 벨사이유협정을 民族的 치욕으로 부각시켜, 무력에 의한 전유럽의 侵略과 占領을 마치도 숙명적인 独逸人의 사명인양 기만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金日成은 南韓에 있는 同族을 피로 물들게하는 무력남침이 마치도 숙명적인 民族史의 要請인양 기만적인 선전을 일삼는 同時에 駐韓유엔군을 民族的 수모인양 왜곡선전하며, 民族的 적개심을 共産化에 이용코자, 소위 "주체"를 내세워 民族主義的 感情을 유도하려하고 있으며, 철저한 피의 肅淸과 같은 暴力으로 正統性 날조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근대적, 전근대적수법과 共産党, 나치당등 온갖 手法을 同時에 動員하여 大韓民国을 중상하고, 正統性을 날조하기에 광분하는 北傀의 선전구조와 論理를 철저하게 暴露하는데 초점이 주어져야만 할것이다.

그럼 以下에서는 우리의 正統性理論体系에서 취급하여야만할 項目에 관하여 言及하기로 한다.

第4章 大韓民国의 民族史的 正統性定立

1. 동태적 측면에서본 우리의 正統性

첫째로, 우리民族의 고대사로부터 일관된 民族史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正統性을 整理, 提示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近代民族史에서 주류를 形成하고 있는 独立闘争史에 있어서의 우리의 正統性을 입증하여야 말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勿論 北傀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民族史에 대한 階級的 観点과 革命史的観点의 왜곡성을 全面的으로 분쇄하여야만 할 것이며, 특히 근세사 부문에 있어서 金日成을 中心으로 날재한 北傀의 近代革命史에 대한 철저한 批判이 수반되어져야만 할 것이다.[20] 또한 이와같은 批判은 일부 共産主義 運動者

註 20)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 대한 집중적 비판이 要請됨.

들이 우리의 独立民族運動에 끼친 분파작용적 해독을 예리하게 지적, 노출시키는 作業을 결드려야만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우리社会의 법통성을 우리가 가지않는 方向에서 整理하여 提示하여야만 할 것이고, 네째번으로는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政治史的 측면 이외의 文化史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正統性을 입증할 만한 歴史技術을 덧붙혀야 할것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제점 가운데 가장 치중하여야만 할점은 역시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이 独立運動의 주류로 되고 그것이 해방이후 유신한국으로 계승되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만 할것이다.[21]

註 21) 여기에 관하여는 朴忠錫 「李朝後期ねける政治思想の展開」 "国家学会雑誌" 88巻, 9-10号, 및 韓興寿의 「韓国民族主義의 展開過程」등이 크게 理論的 土台가 된다.

2. 民族史의 要求라는 측면에서의 現実 体制를 통한 정통성입증

첫째로 大韓民国의 樹立過程과 北傀政権의 樹立過程과의 比較에 의하여 우리의 正統性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둘째로는 6·25사변을 일으킨 北傀의 反民族的 性格에 관하여 集中的인 批判이 가하여져야만 할 것이며 세째번으로는 南北韓의 오늘날 政治, 経済, 社会, 文化에 걸친 사회전반의 体制가 과연 民族中興이란 열사적 要請에 비추워 볼때에 南北 어느体制가 이같은 歷史的 使命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의 体制的 優越性을 통하여 입증하지 않으면 안될것 임.

即 南北韓 경제비교에 있어서는 ① 南北韓의 経済体制 및 政策의 基本路線이 比較되어져야만 할 것이고 ② 主要部門別 南北韓 生産力의 現況이 比較되어져야만 할 것이며 ③ 南北韓 経済의 構造的 強弱点의 比較

및 앞으로의 經済成長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예측 比較가 包含되어져야 할 것임.

둘째로 南北韓 政治体制의 比較에 있어서는 ① 南北韓의 政治理念 및 政治体制의 比較 ② 国民의 基本権保障에 관한 南北韓의 実態 比較 ③ 南北韓의 国家基本政策目標의 比較 ④ 南北韓의 統一政策比較등이 詳細히 取扱되어져야만 할것이다.

끝으로 統一政策에 있어서의 우리의 평화의지를 強調하고, 통일의 達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도적 使命이 있음을 強調할 것등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社会, 文化部門에 있어서는 ① 南北韓 社会構造의 比較 ② 南北韓에 있어서의 住民들의 生活実態比較 그리고 ③ 南北韓에 있어서의 教育, 文化, 芸術에 관한 実態 比較등이 다루워져야만 할것이다.